



미국 : 청년 노동자의 노조 조직 및 노조 지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미국

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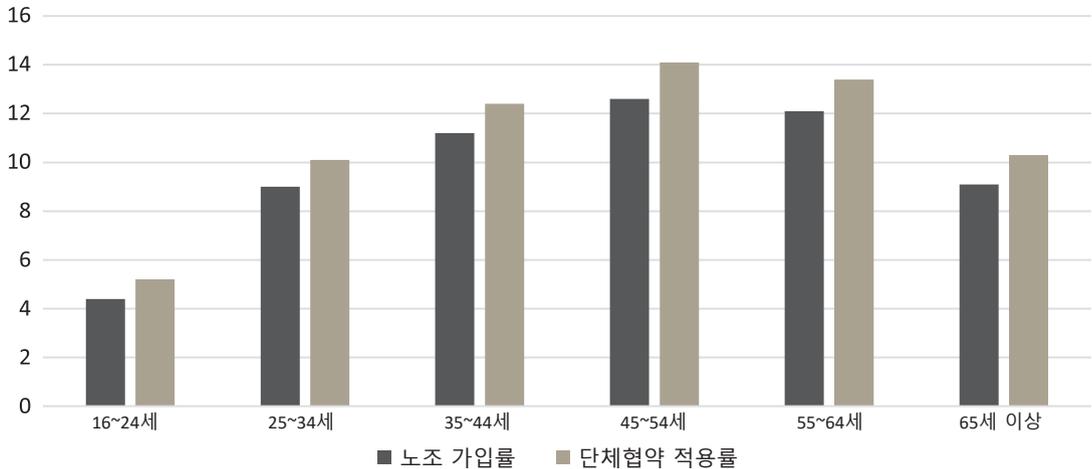
노조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노조의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수십 년 더 노동시장에 있게 될 청년세대가 노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노조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노조는 중장년 및 대기업 노동자 등 일부의 특권 조직일까, 아니면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안전망일까? 최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조 조직화 및 노조 지지율 현황을 보면 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 노동운동 활성화의 중심에는 청년세대가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노동운동에서 대두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청년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과 노조 지지율 상승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청년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 및 지지율

연령별로 보면 노조 가입률(4.4%)과 단체협약 적용률(5.2%) 모두 16~24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그림 1 참조). 특히 이들의 노조 가입률은 가입률이 가장 높은 45~54세(1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5~34세 청년의 경우 16~24세보다 노조 가입률(9%)과 단체협약 적용률(10.1%) 모두 높은 편이지만, 35~44세, 45~54세 노동자에 비해서는 낮고 65세 이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1] 연령별 노조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2022년)

(단위 : %)



자료: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3),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https://www.bls.gov/> (2023.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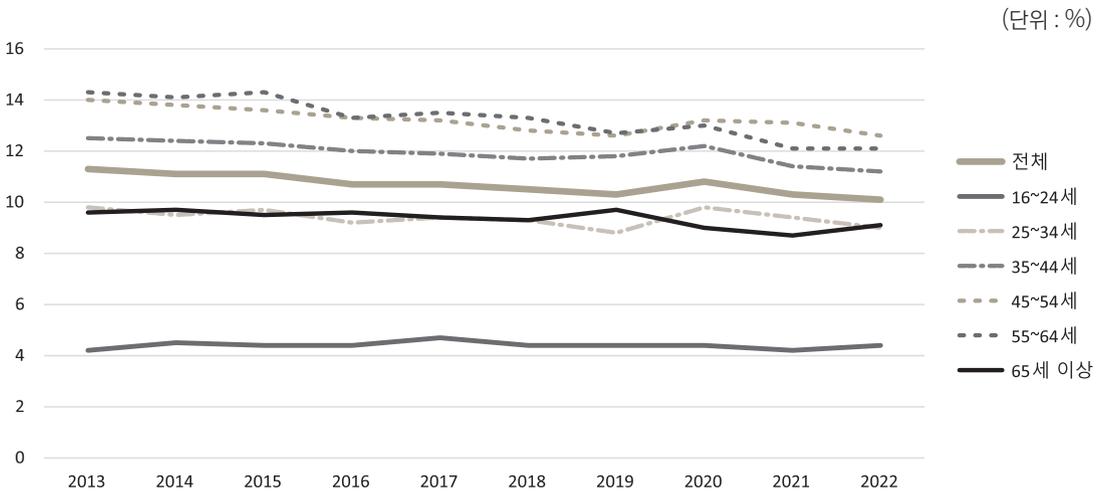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노조 가입률 추이를 보면, 16~24세 노동자의 가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낮다(그림 2 참조). 다만 전체 및 다른 연령대의 노조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반면, 16~24세의 가입률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1~22년 사이에 가입률이 조금이라도 오른 연령대는 16~24세와 65세 이상뿐이었다.

이와 같이 노조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연령대로 구분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세대와 달리 청년세대가 노조에 대해 갖는 인상은 훨씬 호의적이다. 미국 노동연맹 산별조직회의(AFL-CIO)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71%가 노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세 미만 인구의 88%가 노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¹⁾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미국 선거여론조사(ANES) 통계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데,²⁾ 밀레니얼 세대(24~39세)의 노조 지지율은 X세대(40~55세) 및

1) AFL-CIO, “AFL-CIO’s Shuler: State of the Union is Strong with Record Public Support, Unprecedented Activism and Organizing This Labor Day”, 2023.8.29.

2)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Gen Z’s Support for

[그림 2] 연령별 최근 10년간 노조 가입률 추이(2013~2022년)



자료:[그림 1]과 동일.

베이비부머 세대(56~74세)보다 높았고, 최근 설문 대상에 포함된 Z세대(23세 이하)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노조에 좀 더 호의적이었다(그림 3 참조). 특히 이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노조 지지도에는 계급, 이념, 학력 및 성별 격차가 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가령, 대학 학위가 예전처럼 고소득 직업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 자신을 보호할 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청년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다양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헤일리 브라운 연구원은 특히 수도·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영화 산업 및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노조 가입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보았다.⁴⁾ 또한 2022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노조 선거를 치른 노동조합은 대부분 대학원생 노조였다.⁵⁾

노동활동가 라이언 켈리는 청년세대의 80% 이상이 능력만 있다면 노조 가입을 지지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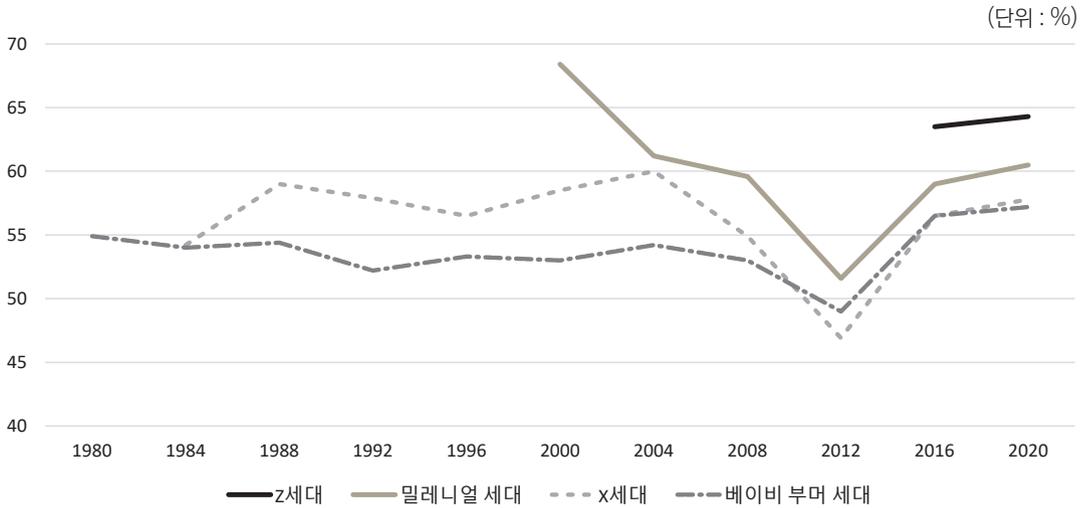
Unions”, 2023.8.9.

3) *Ibid.*

4) AP News, “Young Workers Give Unions New Hope”, 2022.2.14.

5)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op. cit.*

[그림 3] 세대별 노조 지지율 변화(1980~2020년)



자료: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Gen Z’s Support for Unions”, 2023.8.9.

주장했다.⁶⁾ 과거에 비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모두 노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늘어날 정도로,⁷⁾ 노조 가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화 주제로 쉽게 오르내리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 노동자 중 70%는 노조 설립이 더 쉬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77%는 노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에도 70%가 동의했다.⁸⁾

■ 청년 노동자의 노조 지지 요인

미국 재계는 노동조합 없이도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청년 노동자는 더 이상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⁹⁾ 청년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임대료 및 학자금

6) 13 News, “Union Membership on Rise, Especially among Younger Workers”, 2023.9.5.

7) CNN, “Here’s Why Gen Z is Unionizing”, 2021.11.21.

8) Truthout, “Nearly 90 Percent of Young People Support Unions, Poll Finds”, 2023.8.31.

9) The Washington Post, “Young Workers are Organizing. Can Their Fervor Save Unions?”, 2022.9.2.

부채로 인해 일찍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¹⁰⁾ UC버클리대학교의 애니벨 페러스-코멜로 교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 노동자는 노조를 과거 이미지인 “공산주의 선동 단체”가 아닌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¹¹⁾ 실제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조에 가입한 청년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3.86달러로 노조 미가입 청년 노동자의 임금(17.27달러)보다 훨씬 높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및 퇴직급여 수급 비율 역시 노조에 가입한 청년 노동자(71.1%, 54.5%)가 미가입 노동자(46.8%,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¹²⁾

무엇보다 현재 젊은 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¹³⁾ 코넬대학교의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노동교육연구 디렉터는 “그들(청년)은 그들 세대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상황이 부모 세대보다 나빠질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지적했다.¹⁴⁾ 나아가 “청년 노동자는 자신의 삶이 노조 쇠퇴에 영향을 받았으며, 노조가 더 많았을 때 세상이 더 나았다는 사실, 노조가 더 많았더라면 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았다.¹⁵⁾ UCLA 노동센터의 켄트 워그 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환경, 불충분한 임금 등에 의문을 품고 노조 조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⁶⁾

세대 특성에 있어서 현재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X세대가 주로 독립적, 자립적 성향이고 밀레니얼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면, Z세대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에 실망했을 때 집단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¹⁷⁾ 즉 청년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아내거나 이직을 고려하기보다 힘을 합쳐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려는 경향이 있다.¹⁸⁾ 또한 이들은 기존의 하향식, 중앙집중식 노조 조직화 방식에서 벗어

10) *Ibid.*

11) AP News, *op. cit.*

12)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The Union Advantage for Young Workers: Higher Wages and More Benefits”, 2022.9.1.

13) CNN, “Here’s why Gen Z Is Unionizing”, 2021.11.21.

14) *Ibid.*

15) Marketplace, “Gen Z Is the Most Pro-union Generation”, 2023.1.3.

16) Daily Bruin, “Young People Lead New Wave of Labor Organizing According to UC Professors”, 2022.5.8.

17) BBC, “The Gen Zers Leading a New Pro-union Push”, 2023.9.4.

18) Daily Bruin, *op. cit.*

나 일터에 대해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¹⁹⁾

Z세대는 주로 소셜미디어 및 멀티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기 때문에 파업 과정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능숙하다.²⁰⁾ 33세의 나이로 뉴욕 스탠포드 아일랜드에서 아마존 노동조합의 첫 승리를 이끈 크리스티안 스몰스와 조직원들의 경우, 기존 노조들과 협력하는 대신 풀뿌리 조직화 방식을 택한 바 있다.²¹⁾ 이들의 전략 중 하나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마존 창고의 비하인드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청년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진보 인사들의 캠페인을 접했고, 15달러 투쟁(The Fight for \$15), 흑인 인권운동(Black Lives Matter), 미투 및 환경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을 경험하면서 과거 세대보다 더 진보적 성향을 갖게 되고 노조에도 호의적이다.²²⁾ 또한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이 보육 노동자, 보조 교사, 요양원 직원을 비롯해 여성, 유색인종, 이민자를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과거에는 노조가 이러한(기후, 흑인 인권, 낙태, 이민자 등)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노조가 이러한 문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노조를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주장했다.²³⁾ 시카고의 맥도날드 직원인 아드리아나 알바레스는 2014년 처음 노조 활동을 접했을 때에는 8.5달러 시급(3년간 인상이 없었음)을 인상하는 데 회의적이었지만, 15달러 투쟁에 참여하고 시위를 조직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관행 중단 및 시급 인상(16.7달러)을 쟁취했다고 밝혔다.²⁴⁾

청년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적다는 점에서 더욱 대담하고 자유롭게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²⁵⁾ 부양 책임이 있으면 해고를 우려하여 회사에 목소리

19) The Hill, “This Labor Day, Is the Era of Union Timidity Finally Coming to an End?”, 2023.9.4.

20) BBC, *op. cit.*

21) Union Track, “Spotlight: Two Young Union Organizers in the New Labor Movement”, 2022.12.19.

22) The Washington Post, *op. cit.*

23) Marketplace, *op. cit.*

24) AP News, *op. cit.*

25) Jacobin, “Young Workers Can Provide the Organizing Energy that Unions Desperately Need”, 2023.9.4.

리를 내기 어려워지만, 그러한 책임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덜 느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실업률 및 다양한 일자리 기회 속에서 많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해고의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²⁶⁾ 또한 청년세대는 연금이나 승진에 얽매어 한 기업에서 장기 근속하기를 선호하기보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위협하는 전통적 노조 파괴 기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²⁷⁾

■ 맺음말

청년 노동자의 높은 노조 지지도 및 노조 조직화 노력은 향후 노조 가입률 상승 및 노조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현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노조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며, 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 노동자 중 상당수는 노조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⁸⁾ 종종 발생하는 노조 파괴 시도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자의 노동조건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특히 노조 조직 내부에서 세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럽거스대학교 에릭 블랑 교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AFL-CIO 집행위원회의 평균 연령은 61세이지만 최근 노조 설립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하다.²⁹⁾ 뿐만 아니라, 블랑 교수는 젊은 활동가 중 절반 이상이 급진적 성향을 보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기존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³⁰⁾ 즉 청년 노동자의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기존 노조가 어떻게 담아내고 포용할 것인지, 청년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통계적으로 16~24세의 노조 가입률이 여전히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기존 노조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조 설립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을 다루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대한 추가

26) Washington Post, *op. cit.*

27) BBC, *op. cit.*

28) The Nation, "Why Are so Many Young People Joining Labor Unions?", 2023.5.1.

29) Jacobin, *op. cit.*

30) *Ibid.*

